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지난 일은 언제, 어떻게 '지난 일'이 되는가? 그 지난 일이라고 불리는 경험이 왜곡·축소,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화되지 않고 현재 속에서 합당한 의미를 확보할 때다. 오래전의 경험과 사건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다. 지난 일은 늘 현재, 지금의 삶을 구성하고 조건 짓는 특별한 시간 개념이며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곧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일은 맥락적 의미와 감정이 현재 속에 지속되는 한, '과거'가 되기를 거부한다. 여기에 지난 일이라고 해서 합부로 기계적, 물리적 기준으로 폐기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과거는 내다 버려야 하는 고물이 아니다

하고 수용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표현을 들여다보자. 사이드는 개인의 정체성이 외부와의 어떤 관계성, 어떤 형식과 힘, 욕망에 의해서 형성되는가를 말한다. 에드워드 사이드(1935-2003)가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으로 서구 중심적 태도를 비판하며 파란을 일으킨 책이 유명한 '오리엔탈리즘'(1978)이다. 사이드 자신이 상당히 복잡적이고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졌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이집트 카이로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촉망받는 비교문학자이자 교수로 활동하면서 살던 중 이 심한 반(反)이슬람 분위기와 인종차별적 일들을 겪었다. 여기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현대의 고전을 쓴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자신 개인은 성공적이고 탁월한 학자와 교수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양인이며, 소수 인종에 속하는 정체성 역시 과거가 아니고 엄연한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 저서다.

말하는 것은 문화가 어떻게 개인의 상상력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지배적 문화는 예술, 유행가, 개인의 기호와 태도 등에 깊게 스며들어서 삶의 방식과 인식의 틀을 만든다. 그래서 문화를 통한 지배는 지배 권력의 힘과 논리를 정당화하고, 지배 욕망까지 미화한다. 여기에 오리엔탈리즘의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말한다. 밖과 안, 개인과 집단에 작용하는 문화적·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오리엔탈리즘이기 때문이다. 이 오리엔탈리즘이 지금은 철 지난 과거가 되었을까? 결코 아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먼 과거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재생산되고 있다. 밖으로부터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을 우리는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으로 변형해서 사용한다. 우리 스스로 지배자의 눈과 머리로, 강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나'를 규율과 관리로써 계몽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적 오리엔탈리즘'이다. 이 내재적 오리엔탈리즘은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는 태도다. 이 모습이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서 있다는 무지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함께 살아 낸 삶, 여전히 살아 있는 과거는 낡고 쓸모가 없지 않는 고물단지가 아니다. 망각의 상자에 넣었다가 누군가 때가 되면 내다 버리는 유품도 아니다. 오월의 정신을 위즈워스의 시 한 구절에서 찾는 다. "미래의 회복을 위해 / 과거의 영혼을 간직할지니"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출입문을 나와 막 계단을 내려서려던 참이었다. 바로 앞 화단 옆에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잘못하다 들린 사람처럼 남자는 얼른 담배불을 비벼 끄고는 목 인사를 한 후 조심스레 돌아섰다.

오늘의 산책

있으면 그대로 한 풍경이 되었다. 그의 아내가 그가 잡은 봉어며 잉어 등을 머리에 이고 장에 내다 팔았다. 그는 한동안 마을을 떠나 산 적도 있었다. 일찍 고향을 뜯고 그의 아들을 따라 먼 타국으로 옮겨 갔으나 얼마지 않아 되돌아왔다. 그가 떠난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의 원이었을 것이다. 아들은 자유를 원했다. 어떤 구속도 엄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오롯이 자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랐다. 아들은 제 아버지에게도 그걸 선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고직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던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간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가는 듯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흘러서 가 버리는 것만이나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어서, 때때로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에 누구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책임을 묻고 무릎을 꿇리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내 어린 날의 가장 먼 기억도 이렇게 생생해지는 것을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싶어진다. 100년이 지났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잊히는 것도 아니다. 100년이나 50년이나 있었던 일은 있었던 것이며, 기억의 층위에서라면 다를 바가 더욱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을 뿐인데 오늘의 산책은 꽤 멀리까지 다녀온 기분이다. 저 옛날의 '구만이'를 만나고,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며 거기 실린 노랫소리까지 다 들은 것이니 산책을 나와서 문득 과거와 마주친 것이다. 아직 반상(班常)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던 시절의 한 시골 사람 이야기다. 타임머신을 탄 듯 문득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찾아온 이야기에 마음이 잔재져 온다. 그 사람이라고 어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없었을까만, 어찌 못한 채 솔로 탈래 보여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그의 자유이고 해방구였을지도 모르겠다.

기고



박봉주
광주·전남 추모연대 공동대표

1980년 5월 당시 광주는 "빨갱이"의 도시였다. 계엄군에 의해 포위된 광주는 외로운 섬이었으나 그 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구현된 1980년 5월이었다. '폭도'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5·18 구묘역에 잡들어 있던 5월 영령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되었다. 이는 15년의 세월 동안 '5·18 진상 규명'을 외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목숨을 던지며 싸웠던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폭도에서 5·18 민주유공자로 승격하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던 자도 금방 밝혀질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9일 광주 시민을, 더 나아가

5·18 민중항쟁의 역사성, 훼손시켜선 안 된다

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막힌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다. 일부 5월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로 대변되는, 5·18 민중항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자들이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 선언식'을 강행한 것이다. 그들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학살을 한 특전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화해를 하고 그 바탕 위에 진상 규명을 앞당기겠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날 선언식에 참석한 특전사가 광주에 투입된 목적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공동 선언식에 앞서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은 특전사 동지회 20여 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기습침배했다. 1980년 5월 27일 도청을 함락하고 승전가로 불렸던 '검은 베레모'를 제창한다고 했지만 그 노래가 불러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참담할 뿐이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공수부대는 2023년 2월 특전사 동지회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무도 당당히 그렇게 광주에 다시 나왔다. 5·18단체 중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5·18유족회는 이 선언식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불참했고, 광주 시민사회 또한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행사를 주도한 5월 두 단체는 당사자 주의를 표명하며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공동 선언식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를 향해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하겠다는 걸 왜 반대를 하나'며 항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과도한 주장인가? 5·18 민중항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저항과 투쟁으로 이어졌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었다. 또한 5·18 특별법 제정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청춘들과 국민들이 함께 싸워 왔다. 망명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도 5·18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숨겨진 흉기-강상철·표정두·박태영·조성만·최덕수 등 열사들이 영면해 있다. 이런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특전사를 초청해 화해와 용서를 외치는 5월 두 단체의 이중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명확해질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5월 두 단체는 또다시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단 대책위는 "참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역량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광주 시민의 피로 새겨진 5·18 민중항쟁의 역사성을 훼손시키려는 5월 두 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5·18 민중항쟁의 참된 의미와 오월 정신의 가장 큰 밑바탕이 대동 정신임을 일깨워 주는 43주년이 되길 간절히 빌어 본다.

社說

'문화 수도' 걸맞은 공공미술 작품 관리 체계를

수준 높은 공공미술 작품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귀중한 문화 자산이다.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조형물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도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공공미술 작품을 꾸준히 설치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화 수도'를 자칭하는 광주시의 공공미술 작품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청사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형 미술 작품들이 방치되면서, 오히려 도시 이미지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광주시 청사 로비에 설치된 '무당산 광섬유'다. 2003년 신청사 개청 당시 2억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작품은 광섬유 사이로 빛이 반짝이는 게 특징이지만 빛을 내는 조명 기구가 켜지지 않고, 광주를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광주시 청사 앞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5·18 왜곡 망언 일삼은 전광훈 엄중 처벌해야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5·18 43주년을 맞아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되레 오월 정신을 우롱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 27일 광주 북구 광구역 광장에서 '자유 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5·18 당시) 북한의 고정 간첩 세력이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붙을 때 뒤에서 사살했다"며 북한의 개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수부대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향하여 발포를 해서 그 흔적이 뭐 빌딩 벽에 있다?"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었다고 주장했다. "5·18 헌법 전문 수목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의 민심"이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전 씨가 이날 집회를 연 광구역 광장은

無等鼓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방영됐던 '화양연화'(花樣年華)라는 드라마가 있다. 풋풋했던 첫사랑의 시절이 지나고 다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학생운동을 했지만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변신한 남자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중년에 이르러 재회한다는 내용이다. 식상하지만 멜로적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는 눈부신 햇살, 흠날리는 벚꽃 등의 영상미로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00년 양조위와 장만욱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제목도 '화양연화'다. 두 남녀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그린 영화는 같은 날 동네로 이사를 온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넥타이와 가방이 각자 배우자의 물건과 같다는 것에서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두 남녀의 만남은 서로의 상처에 대한 위로라는 측면보다는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게 했다. 최근 1975년 광주에서 창립된 고교생 시조 동인회인 전남학생시조협회가 시집 '다시, 화양연화'를 펴냈다. 이들은 결성 이듬해인 1976년 '도풍시'라는 동인지를 발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기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8005 (FAX 220-0195)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